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2. 16 ~ 2020. 3. 7 제220호



▶ 오만의 무슬림들(제공: WMM)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 있게 증언함이라!

나이가 지긋한 무슬림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 콧마를 머리에 쓰고 절제된 색상의 무슬림 옷인 편자비를 입었다. 모두 중앙에 있는 사람의 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듣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아블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

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선포했다. 그는 더 이상 예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자, 복음의 구경꾼이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복음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복음의 증인인가? 십자가에서 죄인 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에서만 증인의 흔적이 발견된다(갈 2:20). 알고 있는 복음을 이제 믿고 힘있게 나가자. [GNPNEWS]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사도행전 18:28)

다음 호는 3월 7일자로 발행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한 폐렴에 대한 성경적인 두 가지 반응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건강의 책임을 질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한 폐렴으로 2월 초 현재 중국에서만 최소 7백여 명이 사망했고, 29개국에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독교 문화 평론가 짐 데니슨 박사는 우한 폐렴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태도를 제시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목사나 선교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듯 의료진을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많은 의료진들이 이 싸움의 최전방에 있다. 백신을 개발하고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골 4:14), 의료진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

한 존재이다.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 및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모두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당국에서는 우한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손 씻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 피하기, 중국 여행 시 살아 있는 동물 접촉 피하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권고한다. 만약 몸이 아프면 격리조치를 해야 하고 즉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원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경은 반복해서 유혹과 음행을 피하라고 말한다.(딤후 2:22, 고전 6:18)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아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하기로 행동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한 폐렴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히 9:27)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다가올 세상의 확실성과 함께 이 세상의 불확실성을 맞아야 한다.” 당신은 오늘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GNPNEWS]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6) **기도** | 우한 폐렴으로 고통하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교회가 제사장적 직임을 다하고 복의 통로로 서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4)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는 말년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한

호텔에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음식도 거른 채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얻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이토록 비참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다 알고 남에게 전하기도 하면서 정작 두려움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제발 그대로 두라. 십자가 얘기 좀 하지 마라. 죽고 사는 그런 복음 말고 적당히 듣기 좋은 복음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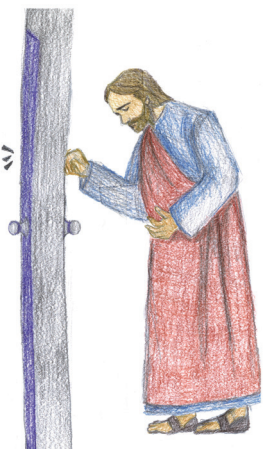
복음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믿는다

고 하면서도 이 땅의 안락함과 자기를 추구하는 삶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한 복음이 내게 실제로 되지 않아 영혼의 갈급함으로 목이 마르거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난 좁은 길로 못가니 그냥 내버려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평생을 복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까지 끼치는 사람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심히 두려워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의 초청이 임합니

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애굽기 14:13)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 해봤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여자피 죽을 인생,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두려움이 심장을 조여 오지만 한 번 죽음을 넘어 영원한 자유인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2017, 규정) 김용의〉



일라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트럼프, 생명을 위한 행진에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



▶ 미국 거리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을 하고 있는 사람들(출처: March for Life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참석해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낙태 반대 운동에서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호소했다. 지난 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수십만 명의 생명 존중 운동가들이 '삶의 힘을 실어주는 것: 생명 존중은 여성 존중'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지금 백악관에 어느 때보다 강한 수호자가 있다."며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사랑을 가져다주며,

모든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민주당은 이 나라에서 수세기 동안에도 볼 수 없었던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낙태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출생 순간까지도 '낙태 지원 낙태'를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TV(Traditional Value)비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지만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 보험

에 낙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연방 기금을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HHS)는 주정부가 선택적 낙태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모든 미국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지금 HHS는 미국인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서의 민권 업무 내에서 이러한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생명을 존엄히 여기는 사법부 판사들을 임명해,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다시 회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영상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생명 존중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의 부통령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생명이 다시 미국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중국, 공산주의 강조하는 신종교정책 2월 1일부터 발효

중국에서 2월 1일부터 모든 종교에 '중국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하는 신종교법안 종교단체관리법이 발효됐다.

6장 41조로 이뤄진 종교단체관리법은 '종교 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그리고 관리' 전반에 대한 새롭고도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아시아뉴스(AsiaNews)를 비롯한 일부 매체는 해당 법안이 종교자유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2017년에 입안된 신종교사무조례보다 강화됐다. 모든

종교 단체가 의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료에게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 종교 사무 관련 부서들은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기관'이 되어 '지도와 감독 관리'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새 법안에 '인민 정부 종교 사무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가정교회, 반체제 가톨릭 단체, 여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 등



▶ 중국 청두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출처: scmp.com 캡처)

이른바 그레이마켓의 활동에는 치명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17조에는 종교단체가 종교가 아니라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념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했으며 39조에는 '본 법안의 해석은 중앙 종교사무국이 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GNPNEWS]

미국 등 최소 17개국, '국제 종교자유 동맹' 결성

미국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가 관료들이 세계 최초로 '국제 종교자유 동맹'(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lliance)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국제 종교자유 샘 브라운 백 특사는 지난달 26일 "이번 동맹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전 세계적

으로 추진하는 '행동주의 클럽'과 같다."면서 "이 동맹은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종교자유를 옹호하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전했다. 브라운 백 특사는 지금까지 적어도 17개국이 이 동맹에 참

여할 뜻을 밝혔으면서 곧 있을 모임에는 20개국 이상 참여했다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불행하게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국제 종교자유 동맹은 사람들이 '종교'를 평화의 도구로 바라보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7~2.8)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중 우한 성도들, 우한 폐렴 위기의 이웃들에게 물품, 숙소 제공

우한 폐렴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중국에서 교회들이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등 이웃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미국 오픈도어선교회(2월 2일 밝혔다).

위기에 처한 중국의 영혼들이 어느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 때에 절망의 끝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 개최, 매주 수요일마다 총선까지

2월 12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7~9시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이 열린다. 초청인은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정주채(향상교회 은퇴)·유기성(선한목자교회)·이재훈(은누리교회)·주승중(주안장로교회)·지형은(성락성결교회)·화중부(남서울교회) 목사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일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는 증인들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멕시코 남부 카르텔 범죄 맞서 아이들도 총기 훈련

마약 카르텔의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는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칠라과 지역에서 카르텔에 맞서기 위해 미성년자들까지 무기를 들었다고 EFE통신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자경단은 정기적으로 운동장에 모여 사격 연습과 군사 훈련을 받으며, 13세 이상 소년들은 마스크를 쓴 채 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다.

주님, 멕시코 전 국민이 카르텔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일에 어린 아이들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서로 총부리를 맞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붙들게 하소서.

이란 원자력청, 미국 제재에도 핵 프로그램 진전시킬 것

이란 원자력청(AEOI)이 미국의 계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오는 4월 자국 생산의 신형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미국은 지난달 30일 이란 원자력청과 살레히 청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 핵을 의지하는 이란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능가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을 얻는 이란이 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2월 17일 ~ 2월 29일

- 2월 17일 ~ 2월 22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2.17~21(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2.17~22(10~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2.17~18,21~22(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2.18(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2.18-2.21(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2.21(20~22시),22(11~13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2.21~2.22(10~22시) ▶전북 전주 / 주 소망교회(최**)010-4661-4039, 2.22(08~20시) ▶경북 의성 / 삼성초대교회(김**)010-8528-3217, 그외 7교회 진행중.

- 2월 24일 ~ 2월 29일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2.24,26~29(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2.25,28(10~12시)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2.27(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2.28(10~14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2.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2.28(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2.28(09시)~29(12시) ▶대구 달성 / 하늘순교교회(정**)010-9557-5154, 2.28(10시)~29(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기획 | 이슬람 세계가 열린다 (3.끝)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기념교회(©복음기도신문)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래전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던 사람들 즉, 모태 기독교인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의 종교를 인정하는 편이다. 이는 이슬람이 대세인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물론 방문지인 이집트 역시 콥틱으로 알려진 이집트 정교회나 개신교 등의 기독교파에 대해 별도의 예배당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류기간 중 방문한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한 장로교회는 지난해 12월초, 주로 장년층으로 이뤄진 50여 명의 성도들이 강대상 뒤쪽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잦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경험 때문인지 사진 촬영은 입구부터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별도의 통제는 없었지만 제대로 촬영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몇 년 전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기도 한 알렉산드리아의 마가기념교회는 입구부터 무장경비요원들이 가방 및 소지품을 검사하며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 교회는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1세기에 이곳에서 사역하다 온몸이 묶인 채 마차에 끌려다니다 순교한 것을 기념해 세운 곳이다.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바울과 만나바를 크게 싸우고 결별하게 한 원인 제공자였다. 이는 한때 믿음의 삶을 열망하며 바울을 따라다녔던 마가가 소아시아에 소재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 갑자기 이곳에서 떠나 버린 일을 두고, 마가의 돌출 행동에 실망한 바울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아마도 마가는 그 이후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이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

삼엄한 경계로 교회 감시

또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도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제한된 구역 안에서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크리스천 컴플렉스(복합 단지)를 지정, 이 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자국 언어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 안식일인 금요일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장관을 이룬다. 두바이에 위치한 이 공간은 마치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듯한 모습 같았다. 이는 충격을 넘어 감동으로 다가왔다.

한인 주재원 등이 교인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두바이한인교회는 한 자리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참석,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이 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다 최근 선교담당 목사로 역할을 바꾼 신철범 목사는 "출석교인들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이곳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훈련을 통해 출석교인들에게 선교적 삶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회는 매년 두바이미션페스티벌(두미페)을 열어 주로 무슬림권 선교사들을 초청, 이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등 선교지 한복판에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같은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본산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때 한인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중동에 진출할 때, 이들 나라에서도 한인교회들의 활동이 허용돼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최근 국제적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활동자체가 줄어들어 한인교회의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에 의존하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행 비자를 허용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책 전환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정책도 달

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원활한 관광을 위해 해외 관광객을 응대하기 위한 여행업 관련 인력의 상주와 식당 등 부대 시설 가동을 위해 이곳을 찾는 국가의 주재요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이들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관심의 핵심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회심자들이다. MBB(Muslim Based Believer)로 불리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임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이슬람 국가들은 법률적으로

무슬림의 개종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전환, 외국인 종교 활동에 주목

최근 이슬람 국가이지만 교회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한 중동국가의 선교사에 따르면,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한 형제의 개종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정보요원을 통해 집요하게 무슬림으로 재개종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직장에서도 퇴사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신학을 공부하며 교회사역을 하던 그 형제는 정부기관의 압력을 받아 교회 사역조차 내려놓게 됐으며, 교회에서 교제하던 모든 동역

자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돼 버렸다. MBB의 개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자체에 압박을 가해 개종자들의 신앙생활을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심한 무슬림은 자국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란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개종자가 가장 많으며, 그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 지역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이들에 대한 양육이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GNPNEWS]

중동=C.K.

“주님은 내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주셨습니다”

A국에서 만난 만수르 형제는 전형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 독실한 원리주의자였다. 코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지켜야하는 줄 알고 살았다. 그러나 형제는 자신의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복음을 만나게 됐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다. 그와의 일문 일담을 소개한다.

-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더욱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우리 집안은 살라피즘을 믿는 지독한 원리주의 무슬림이다. 그런 우리 집안에서 기독교인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

“어느 날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과 고모 등 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 예수를 믿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나는 휴가만 나오면 그 집에 갔다.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권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한번은 그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을 웨이커 같은 이슬람 지도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답을 하지 않고, 이런 질문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다 친척들의 소개로 기독교인을 만났다. 코란도 외우고 기도하며 단단히 준비하고 갔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밝은 표정이었다. 내가 가져간 질문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 같은 내용들이었다. 너무나 쉽게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다.”

- 그때 느낌이 어땠나?

“무슬림 사회에는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 그런 거짓말이 무슬림에게 기독교에 대해 오해를 갖게 하고 있다. 그들과 교제하고 난 뒤부터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어느 날 고모집에 갔을 때 고모부의 입에서 피가 나는 데, 고모의 기도로 피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됐다. 놀랐다. 그리고 서원기도를 드렸다. 그런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 지금은 결혼했다고 들었다. 아내도 무슬림인가?

“집안 소개로 결혼했다. 서로 무슬림으로 알고 결혼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도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사람이었다. 놀라웠다. 나중에 교회에서도 단출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태어난 아이들도 여전히 표면적으로 무슬림이다.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아이들이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 가면 무슬림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다 어려움이 생기면 삶



▶ 자동차와 마차가 같은 도로에 있는 이집트의 거리(©복음기도신문)

- 회심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

“내가 무슬림으로 거칠고 난폭하게 행동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행동이 착해진 뒤 가족들이 나의 변화를 알게 되면서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나를 배신자라고 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 그런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겉으로는 무슬림으로 살아야 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매일이 고난의 시간이었다.”

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행복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유익을 위해 쫓아가지만, 주님이 내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 주님 오실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다. 마라나 타!”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29)

대홍수 전,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공룡 뼈는 인간 뼈, 포유류의 뼈와 함께 발견되고 있다. 때로는 석화된 인간의 손과 같은 암석층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잉카 돌판 중 하나는 사람이 공룡을 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발견됐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된 텍사스의 글렌로스에 내가 직접 가보기도 했다.

글렌로스라는 조그만 마을은 펄록시 강이 흐르고 있고 온통 석회암으로 덮여있다. 지역 전체가 석회암이며, 강은 석회암층을 깎아서 통과하고 있다. 1908년에 이곳에 아주 큰 홍수가 발생했다. 그 강은 1마일(약 1.6km) 당 17피트(약 5m) 낮아지는데, 홍수로 강이 범람할 무렵, 제방보다 30피트(약 9m)이상 수위가 올라갔다. 그 와중에 홍수가 강바닥을 쓸면서 석회암층들을 깎아낸 것이다. 2피트

(약 60cm)의 석회암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석회암층이 드러났고, 다음해 여름에 강이 마르자 거기서 수백 개의 공룡 발자국들이 발견됐다. 이곳은 이제 '주립 공룡 골짜기 공원'이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강에 침식되지 않도록 많은 발자국들을 떠나서 박물관에 보관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지역에서 공룡 발자국과 함께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된다. 발견된 사람 발자국 중 공룡 발자국을 가로질러 가는 것도 있다. 홍수를 피하려고 진흙탕을 뛰어갈 때는 누군가가 이미 밟아 놓은 곳을 밟는 게 논리적이긴 하다. 깊은 눈 속을 걸어갈 때처럼 말이다.

우리는 오늘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처음 수십분 만에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6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비는 40일간 왔지만, 성경은 물이 150일 동안 계속 '올라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물이 '땅의 깊은 샘으로부터', 즉 지표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표 안에 있었던 물이 홍수를 일으킨 것이다. 물이 차오르기 시



▶ 1967년 텍사스 주 글렌로스에서 발견된 공룡의 발자국과 강바닥 위쪽 석회암층에 나타난 사람의 발자국(출처: creationhistory.com 캡처)

작하자 사람들은 높은 지대를 찾아 올라갔을 것이다. 서로 높은 지대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암반층을 떠났을 때 그 아래 석회암에서 더 많은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발자국 하나는 발가락을 가로질러 자국이 나 있었다. 그 가장자리 알갱이들을 연구한 결과, 이것이 압착되면서 얇은 면이 뒤틀려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발자국들은 6~7피트(약 1.8~2m)의 보폭을 가지고 있다. 매번 이 정도 보

폭을 가지려면 아주 큰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 발자국 발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금 애리조나주의 남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지인이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호빈드 박사님, 저는 발자국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칼 보우 박사와 함께 발굴 작업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룡 발자국 옆에 있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마치 그 사람이 공룡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바’(1974년부터 방송된 미국의 과학TV 시리즈, 역사 주)도 발굴하는 현장을 촬영하려고 왔고 한 진화론자는 거

기서 보우 박사와 계속 논쟁했습니다. 노바는 발자국들이나 우리의 발굽은 별로 촬영하지 않았고 그 진화론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진화론을 반증하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발자국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노바는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에 반대되는 것들은 TV에 방영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인간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지 인간 같은 발을 가진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한다. 기발한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진화론이 연구에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예일 것이다.

미국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론자들은 인간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고 말했다. 그 중대한 발언들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발견한 이들의 이름들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발견을 한 사람들 중의 하나로 시간의 회랑에 우레처럼 내려올 것이다.” 미디어가 막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고마 헤브론 공동체 이야기 (1)



로마서를 외운 고마 청소년들... 성경암송에 교인들 충격과 도전 받아



▶ 로마서를 암송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한 고마 헤브론 공동체 청소년들(제공: 김경희 선교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딤후 2:15)

작년 고마 헤브론 공동체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 복음 캠프를 진행한 후에 공동체에 입소할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의 교육 시스템은 9월 학기제이다. 이에 우리 공동체도 9월이면 신입생을 받고 새학기를 시작한다. 지난 9월 학기에는 주님이 2명의 10대 신입

훈련생을 보내 주셨다. 그래서 기존의 지체들 6명과 신입으로 들어온 2명의 지체들 총 8명과 함께 2019년 새 학기를 시작했다.

헤브론 고마 공동체 지체들은 두 개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오전에는 모든 지체들이 일반 학교에 간다. 오후 1시 30분에 학교를 하고 오후에는 그리스도만 남는 학교, 즉 헤브론 공동체의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간다.

새 학기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심령에 뿌리내리게 할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복음과 미술’과 ‘로마서 암송’ 이 두 교과목을 새롭게 열게 됐다.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복음스터디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복음과 미술로 심화하고 로마서 암송으로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진행됐다.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번 학기에는 로마서 1, 2, 3장을 암송한다고 하니 공동체 지체들은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전장을 암송한다는 것은 정말 생소한,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된 로마서 암송은 10주 동안 계속됐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심령을 통과하도록 목상을 하고 되새김질하여 외우도록 지도를 하면서 드디어 1장 암송 끝!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어, 이게 되는데요?” 지체들의 얼굴은 자신감과 기쁨이 넘쳐났다.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2장, 3장 암송이 진행되면서 식탁에서도 누군가가 한 절을 외우기 시작하면 서로 절수를 주고받으며 암송했다. 음악이 없을 뿐이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했다.

학교를 오고가며 그리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할 때도 큰소리로 외치니 이웃들은 우리 지체들의 낭독 소리를 듣고 아멘을 외치기도 했다. 고마의 롤란드(‘중얼거리는 자’라는 네덜란드어. 종교개혁 이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전한 부흥운동. 역사 주)는 그렇게 암송의 즐거움과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선포할 기회를 주셨다. 섬기고 있는 현지교회에서 남편 윤 선교사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이 기회에 교인들 앞에서 로마서 말씀선포를 하기로 했다. 두 주간 집중연습을 했다. 연습을 하다 보니 그냥 서서 하는 것은 미땀했다. 형제, 자매들이 교대로 외우며 선포하기도 하고 개인 혹은 전체로 암송을 하며 변화를 주기도 했다. 위치와 목소리 톤으로 강조와 절망, 그리고 소망을 그려내며 연습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체들이 자신이 틀리는 부분은 반복을 해도 자꾸 틀리기 일쑤였다. 한 명의 실수가 전체의 실수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을 통해 한 몸 된 공동체를 더욱 깊이 새겨 주시는 시간이기도 했다.

마침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로마서를 암송으로 선포했다. 교인들은 설마 1장 12절 정도만 하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암송에 성경책을 꺼내 들고 확인을 하면서 읽는 성도도 있었다. 그리고 1장이 마무리되자 여기저기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아멘 소리와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다. “정말 저 아이들이 3장까지 외운다고?”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였다. 그리고 모든 암송이 끝나고 복음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자 지체들을 향해 큰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왜냐하면 고마 지역의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계속> [GNPNEWS]

민주콩고 고마=김경희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침내 믿어졌어요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김광희 전도사



©복음기도신문

구정 연휴를 마치고 찾은 김광희 전도사의 집은 매우 단출했다.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있고 조금은 적막했다. 집을 선교사의 침대로 내주고 정작 자신은 한 선교단체에 헌신,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모처럼 휴가를 받아 돌아온 집이었지만, 이제 이곳까지 정리하고 주님이 불러 주신 자리로 행복한 선교사의 행진을 하기로 한 김광희 전도사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들어본다.

- 공동체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2017년에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이후 계속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한 선교단체에서 불러 주셔서 기쁘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공동체 식구들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치열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누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래서 현재 단체 선교사님의 조언에 따라, 주님이 다음 걸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 공동체로 살면서 어려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가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나만의 공간에서 살아왔다면, 공동체 생활은 그런 개인적인 공간이 없어요. 한 방을 함께 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성향이 참 다르죠. 그러면서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함께 살지는 않고 옆에서 선교단체를 섬길 때는 참 좋았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눈물을 툭툭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도망갈 데도 없어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요. 만약 내가 도망간다고 하면 주님이 묵묵히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아파하실 거예요. 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은 그런 주님이셨거든요.”

공동체,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

- 그런 결단 이후의 공동체 삶은 달라졌나요?

“같이 살았던 두 선교사님은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옳음과 기

준에 대해 깨닫는 통로였어요. 제가 자존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들부들 떨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넘기고 나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아, 이게 자아의 죽음이구나.’ 경험하게 된 것이죠.”

-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나눠주시겠어요?

“관계가 치열하다는 것은 나의 옳음과 기준에 대해서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태라면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안 되는 나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상대가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다 용납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상대는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의 판단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의 악독함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셨군요.

“저는 저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군요. 말로 서로 마음을 풀고 교제를 해봐도 또다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다시 나의



▶ 성경책과 간단한 일상용품밖에 없는 소박한 책상(제공: 김광희 전도사)

옳음과 기준이 치고 올라왔어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았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안 돼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나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지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예배 중에 주님께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릎 꿇는 것으로 입증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이후 그분과 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저를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저 때문에 계속 십자가로 나가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계속 싸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로 울었어요. 제가 혹시 또 넘어져도 주님이 무릎 꿇으라면 다시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 안의 옳고 그름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다

- 헌신을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복음학교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학교 원서접수는 끝났고, 중보기도학교는 아직 원서를 받더군요. 면접 때 ‘복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시 신학생인데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주님이 합격시켜 주시고 입학금도 해결해 주셨어요.”

첫 강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부터 눈물을 툭툭 흘리며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던 모든 것들의 답이 다 있었어요. 계속 목이 말랐어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채워지지

분이 있었어요.”

-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의 가정사가 복잡해요. 엄마는 여러 번 결혼하셨어요. 엄마는 동생을 낳고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우리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유망한 국제결혼에서 발생한 호적 문제로 시집을 갈 수도 없었고, 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후로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집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어요. 오빠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잖아요. 오빠가 나를 찾지 못하게 주소지도 이리저리 옮기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사체를 빌리게 됐고,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맞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병원비로 쓴 빚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두지 않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 우여곡절이 많으시군요.

“네. 어려움은 더 있어요. 오빠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적인 괴로움을 당하면서 2년을 끌려 다녔어요. 결혼을 해서 오빠한테서 벗어나려고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사기를 당했어요. 저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왜 죽으려고만 해. 언니 키워준 할머니, 아버지는 생각 안 해?’ 그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혀가 굳어지고 기억이 확 지워졌어요. 이후 오빠한테 도망치려고 했다가 붙잡혀서 협박도 당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가까스로 친척 집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엄마와는 여러 오해와 갈등으로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내 인생에 엄마

가 죽었다고 여기게 됐어요.”

- 얼마나 힘들셨어요?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같네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기에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20대에 인생이 끝났으니까요. 사기당한 국제결혼에서 발생한 호적 문제로 시집을 갈 수도 없었고, 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후로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집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어요. 오빠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잖아요. 오빠가 나를 찾지 못하게 주소지도 이리저리 옮기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사체를 빌리게 됐고,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맞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병원비로 쓴 빚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두지 않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문

-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셨나요?

“하루는 마음속에서 신음 같은 절규가 터졌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나를 극적으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내겐 세상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여전히 나는 돈의 노예였고, 빛은 갓고 죽어야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중매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교회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나에게 있었던 고아라는 콤플렉스와 과거를 숨기려고, 얼마나 요조숙녀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겠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믿음으로 사는 복음 (3)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빼고 할 말이 있을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먼저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이는 실제 생명의 관계를 말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닌 체험하여 안다는 의미로 생명의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그건 행복 자체이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다면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것이다. 그분께로 피한다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안의 삶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범죄한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는가! 죄인인 우

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수준이 아니고는 안된다.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아들 예수의 자격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 구약의 핵심이다. 성경 전체의 새 언약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미쳐버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내 말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 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든, 어리석게 보이든, 배척을 당하든, 평생에 외칠 말은 이 십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하나님



일러스트=노주나

님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보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 다. 온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 어

마어마한 중세 가톨릭의 세력에 도전장을 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 죽을 지옥심판을 이미 결론으로 받았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새 생명을 살아가고 누리는 것도 오직 믿음인 것이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고철덩어리가 되듯이, 고래를 백사장에 끌어놓으면 고깃덩어리가 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믿음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떡과 포도주로 살지만, 진리로 거듭나 오직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하늘 백성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라는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1국 000선교사 부부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진짜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어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책을 한 번 읽어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읽은 책을 반복해 읽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들 통나면 안 되니까요.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는 나의 실상이 드러날까 봐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나 복음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제가 우리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속은 썩이지 말아야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전폭적인 사랑은 믿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와는 별개라고 여겼죠. 주님을 불신하면서도 그저 내가 주님이 좋으니까 순종하려고 했죠. 그리고 제 삶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보편적인 삶을 허락하셔야 했다는 연민이 하나님의 사

랑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실체가 된 건 6개월간의 공동체 훈련으로 진행되는 복음사관학교 때였어요. 복음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는지 나누는 시간에 성매매업소에 있던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걸 건드시는 건 아니죠!’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일을 들춰내고 나누게 하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아, 진짜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만약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좇으며 미친 듯이 달렸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GNPNEWS]

H.M.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공동체 저체들과 주방섭김에서(제공: 김광희 전도사)

아이들의 기도가 바뀌며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다

다음세대를 훈련하는 빛의 열매학교를 처음 섬기게 됐다. 생소한 영역이 많았다. 훈련생인 학생들 가정에 전화심방, 보고서 작성 제출. 또 수업 중 졸업과 장난치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섬김을 통해 부모님들은 또 어떤 대가를 치르며, 아이들을 보내는지 알게 됐다. 그렇게 훈련과정이 진행되는 중 아웃리치를 떠나게 됐다. 주님이 허락한 나라는 캄보디아. 어느 날 기도 중 주님은 내가 사랑 없이 섬겨온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셨다. 준비과정 중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우리는 열방 한복판에 와 있었다.

달라진 환경과 상황으로 첫날부터 어려움이 속출했다. 불순종,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태도, 다른 걸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배고픔과 졸음까지. 불만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 처절한 나의 절망과 믿음 없음을 보게 되



일리스트=고은선

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루 이틀 지나며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고학년 친구들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여줬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줬다. 아이들은 말씀을 붙잡았다. 아이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쁨이 넘쳤다.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쁘게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녀온 이후, 가정에서 달

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가져온 열매들이다. 또한 십자가 사랑만이 섬기는 자의 자세이며 전부인 것 알게 하셨다. 처음 다음세대를 섬기며 아무 경험도 없는 나에게 남겨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기초 위에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셨다.

[GNPNEWS] 김성희

내가 러시아어 강의라니?

현지 청년 대상의 복음캠프를 섬기며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이름으로 K국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나는 특별한 사역을 하고 열매가 드러나야만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수생명으로 서 있는 것이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서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캠프를 섬기게 됐다. 직임은 강사, 오직 러시아어만 사용해야 했다. 이곳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온 두 지체가 웃으며 알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았다.

캠프를 앞두고 일주일 치 음식을 주말에 만드느라 지치기도 했고, 러시아어 강의 준비도 쉽지 않았다. 발음이 좋지 않은 나의 강의 준비를 도와주는 현지

인 친구가 정말 힘들어했다. '어떻게든 이 강의 한 개만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런데 캠프를 함께 섬기기로 했던 원어민 강사가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게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던 선교사님이 치료차 한국에 가셨다가 암이 발견되어 당장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다.

안정된 환경과 원어민 강사에 묻어가려던 나의 기대는 무너졌다. 하나님은 도리어 강의 2개를 더 맡게 하셨다. '주님 이게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주님은 민수기 말씀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 캠프의 강사로 섬길 수 있을 만큼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그들 앞에 서서 맡겨진 강의를 끝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영

광과,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말 많이 틀렸다. 좋지 않은 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는 했을까? 의문마저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훈련생들의 귀를 예비해 두셨다. 또 정말 순한 양같이 나의 말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훈련생들의 마음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정말 제한 없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셨다. 아직 이곳에서의 일들을 다 알 수 없고 여러 염려들이 있다. 하지만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쁘게 이 길을 갈 것을 결단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김지혜

부흥을 위하여

우한 폐렴 확산처럼 북한 생화학 무기도 조심해야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을 두고 미국 국방차관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한 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역량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을 받자 "북한 생화학 무기는 매우 주목해야 할 우려"라며 "북한은 상당한 수준(very substantial)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과 나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며 "그것처럼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미국과 한국 또는

다른 관련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사항"이라고 루드 차관은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큼이나 위협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급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보기관이 파악한 데 따르면, 북한은 1954년 미생물연구소 설립해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국방과학원 산하 세균화학연구소·의학연구소, 국가과학원 일용국 산하 미생물연구소, 미생물보존연구소 일용과 등 전국 21곳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 또한 평안북도 정주시, 서해 외딴 섬, 강원도 문천 등에서 생화학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 등에서는 북한군이 탄저균·천연두·페스트·콜레라·장티푸스·발진티푸

스·이질·유형성출혈열·황우독소·브루셀라·야토균·보툴리눔 독소(일명 보톡스)·황열병 등 13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북한이 2005년 홍콩과 동남아에서 조류독감(H5N1)과 신종플루(H1N1) 바이러스를 입수해 무기로 개발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

된 적도 있다. 미국 스티븐센터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과거 함경북도 회령 소재 '제22호 수용소'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탈북자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이 정치범을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 생체실험을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 [GNPNEWS]

북한 장마당, 진통·해열제 동나

북한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에 나서면서 장마당에서 이미 진통제, 해열제 등 감기 관련 약품은 동이 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을 인용, 각 지방 당조직을 통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정치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

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앞다퉈 약품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해열진통제인 '정통편' 값이 며칠만에 3배까지 뛰었다. 정통편은 원래 1통(100알)에 중국돈 350위안에 거래됐으나 요즘은 700위안에도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그리스도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답한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지금 살아계신다. 자신의 말씀처럼 그분은 부활하셨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분의 영이 죽은 그리스도가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만큼 담대하게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헌신 가운데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한다. [GNPNEWS] <성령님(2006), A.W.토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과 확산방지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북한방송(출처: nknews.org 캡처)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적 개념>

상한 심령의 예배

이탈리아의 미술가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는 1958년 캔버스에 날카로운 칼자국 하나를 남겼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폰타나는 평면인데도 입체처럼 보이려 노력했던 오랜 회화 전통을 훼손하였다. 더 이상 캔버스가 평면이 아닌 부피를 가진 물건으로 인식하기 위한 의도였다. 폰타나의 이 대담한 공격은 단번에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가 낸 상처는 낡은 전통의 죽음을 선언한 것으로 박수를 받았다.

그저 '빈 캔버스'가 되었을 뿐

그러나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폰타나의 작품은 어떻게 보일까? 단 한 번의 베임으로 오랜 관습에 도전한 그의 저항은 꽤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폰타나는 이 영광의 상처 외에 이렇다 할 후속작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가

드러낸 상처 자체가 종결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상처 입은 캔버스는 이제 멋진 풍경도 아니요, 성경 속에 기록된 감동적인 장면도 담을 수 없는 그저 '빈 캔버스'가 되었을 뿐이다. 캔버스는 상상의 무대가 아닌 직조된 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자 사무치도록 허무한 빈자리만이 드러났다. 폰타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베어낸 것은 단순한 평면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었다.

상처 그대로 주께 보여드릴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폰타나가 남긴 상처가 허무한 끝을 강조하였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끌어안은 상처와 쓰라림은 오히려 다른 결말로 안내해 준다.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날카롭게 베인 상처만 남은 그때, 놀랍게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다. 바로 예배이다. 참된 예배는 그럴 듯한 내 모습이나 번듯한 예물로는 가능하지 않다. 처절한 자기 부인과 수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안고 있는 이 상처 그대로를 주께 보여드릴 때,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시 51:16~17)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작품설명: 루치오 폰타나, <공간적 개념 - 기다림(spatial concept-waiting)>, 1960년 경, 93x73cm, 캔버스, 영국 테이트에 소장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유방암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믿었다

지난해 2월 건강검진을 받았다.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병변 모양이 좋지 않아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당시 나는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 복음이 실제 되지 않은 나의 실상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 검사결과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악독하고 교만해서 주님이 이렇게라도 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나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결론을 붙들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시는 상황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고 믿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신뢰했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전부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나를 불러 주셨다.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누리며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그런 선교사로 부르셨다. 옆치락뒤치락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듯이, 내게도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했다. 그것을 위해 이 재료가 필요하다면 감사히 받기로 결정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고 나니 눈

물이 났다. 걱정되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 감사해서, 나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서 울었다.

3일 후에 검사결과가 나왔다. "유방암입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지만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항암치료를 받을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장을 돌며 운동을 했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운동장 구석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외쳤다.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암도 이렇게 두려운데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로 자원하여 가셨나요? 나에게 암을 선택하라고 하시면 저는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사랑해서였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다. 살리는 길은 이 길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나와 나눌 사랑과 기쁨의 교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사람 낳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며불며 운동장



일러스트=이수진

을 달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허락지 않으셔도 더욱 선하게 이끄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 마음을 단련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직면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다.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고군분투하는 나를 살려 달라며 매달렸다. 더욱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면 망하고 주님이 하셔야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오리로다"(시 11:3~4, 7)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은 육체가 되어 버린 자신을 여전히 터삼고 있는 나를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는 동안 그리스도는 나의 터가 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안선영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1. 17 ~ 2. 4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경선 김란숙 김사회 김애심 김유남 김일범 김혜신 노은옥 문미현 박숙자 박승은 박용자 서범일 안민자 안수경 윤경석 이경형 이남준 이영옥 이은주 이진희 이현희 임보람 장근혜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차정규 최순덕 최정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PM복음과기도미디어 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새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